

몽골 청 간섭기의 몽골족 복식과 청대 복식의 비교

최 해 울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세종패션디자인연구소 책임연구원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Mongolian and Ching's Costumes of Ching's Intervention Era in Mongolia

Hai-Yaul Choi

Ph.D.,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rged Researcher, Sejong Fashion Design Institute
(2005. 7. 1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rrectly understand the shapes and transformation of costumes of Ching's and Mongolian.

Mongolian traditional costumes are trousers and jacket, with Deel(袍) and Terlig(帖裡) pleated in the waistline, and knee-covering narrow-sleeved long dress for men and women alike. It was designed for adapting to horse riding activities and cold steppe climate. Similarity between Ching's and Mongolian nomadic costumes was used as a means of unity by Ching.

Transformation of Mongolian nomadic costumes are further divided into three kinds; Ching's or Russian's details applied to Mongolian nomadic costumes(Taekeum(大襟), Majesu(馬蹄袖), white choker), Ching's court costume imported as it is for the political purpose(Kijang(旗裝)), resistance against foreign countries and the spirit of nomadic people and independence reflected in Mongol costumes('Teregur ushi', 'Correct bosom'). Specially, Nomadic symbols constitute Mongolian spiritual world and clothing habits, especially evident in ladies' dresses.

Key words: Terlig(帖裡), Majesu(馬蹄袖), correct bosom(올바른 여밈), teregur ushi(등근 머리), Ching's costumes(청 복식)

I. 서론

古代와 원 제국기를 거쳐 한국과 깊은 관련을 가졌던 몽골의 의복생활은 한국복식의 역사와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몽골 복식의 형태와 의미를 깊이 고찰하는 것은,

한국복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

몽골의 민속유물로 현존하는 몽골복식들은 대부분 淸 간섭기(17~20세기 초)¹⁾를 거쳐 형태가 완성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淸 스타일을 상당부분 답습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이론은 양국 복

식유물 간의 시각적인 유사함 및 청이 몽골을 병합했다는 역사적 상황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과 몽골은 오래 전부터 遊牧환경을 기반으로 생활해 왔다. 또한 원 제국 멸망 이후 청 제국이 몽골부족을 편입하기 이전인 몽골 북원기(北元期)에도, 두 민족은 상당 기간을 함께 유목생활을 행하면서 복식 및 민족융합을 이루어 온 바 있다.

따라서, 몽골복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몽골복식의 기본형과 청 복식의 형태가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 간섭기의 몽골복식과 청 복식의 형태를 살피고, 차이점 및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시대적으로는 청 간섭기의 몽골과 청 복식으로 한다. 청 간섭기 전후의 몽골은 수십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부족 및 지리적 위치에 따라 청과의 관계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청에 비교적 일찍 편입되었거나 정치적으로 가까웠던 지역, 오랜 항쟁기간을 거쳤던 지역, 비교적 외곽에서 전통을 보존할 수 있었던 지역으로 구분된다. 전통의 보존과 지리적 위치, 청과의 투쟁상황 등을 근거로 하여, 지리적 연구 범위는 남시베리아 지역의 부리얏(Buryat), 외몽골의 할하(Khalkha), 중국과 인접한 내몽골, 서몽골의 복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한 청과 몽골 민족의 기반이 ‘유목(遊牧)생활’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축고 척박한 유목환경 및 기마 생활에 유리하며, 유목상징을 가졌거나 민첩한 전투와 관련된 디테일을 가진 복식을 중점으로 비교 연구를 행한다. 더 나아가, 이를 몽골의 입장에서 ‘몽골 유목풍’과 ‘淸과의 관계로 인해 변형된 복식’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청 간섭기의 몽골 및 청의 복식 유물 및 고문헌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행한다. 다만 몽골에 보존되어 있는 복식 관련 유물이 많지 않으므로, 현지 학자와의 인터뷰²⁾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기로 한다.

II. 시대적 배경 및 몽골의 기본 복식형태

몽골의 고대 복식 기본형은 오른쪽으로 깊게 여머지는 델(дээл:袍)과 바지로 알려져 있는데, 크게는 산림에서 생활하는 몽골족의 비교적 짧은 델(억터르 델)과, 초원에서 기마생활을 하던 유목 몽골족이 착용하던 긴 델로 나눌 수 있었다. 긴 델은 말등 위에서 무릎과 소매 속으로 몰아치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었고, 기마하기 편하게 허리에 주름을 넣은 것이 대부분이었다.³⁾ 이러한 길고 소매가 좁은 델과 바지는 칭기스한이 빠르고 유동적인 기마 유목생활을 바탕으로 방대한 제국을 건설해 나가던 12-13c 무렵에 특히 그 유용함을 발하던 의복 형태였다.⁴⁾

중원에 자리잡았던 원 제국에서는 주변국과의 교류로 인해 복식형태가 상당 부분 변화했다. 원 제국 복식의 대부분은, 몽골 고유의 유목 복식 형식은 유지하되 高麗나 페르시아 등의 외국에서 수입한 호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추위를 막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의복, 또는 고대 몽골 복식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서 너비가 넓은 漢族의 官服 혹은 치마와 짧은 반비의 조합(고려양) 등으로 바뀌었다.⁵⁾

몽골제국의 전성기와 쇠퇴기를 막론하고 유목과 기마에 알맞은 몽골의 고유복식 형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몽골제국 멸망 이후 직조기술이 쇠퇴하는 한편 새로 건국된 淸과 맺어진 군신관계로 인해 복식생활도 그에 따른 변화를 맞게 되었다.

1368년 수도를 주원장에게 내준 후 몽골(元)은 북으로 후퇴하여 北元으로 불리게 되었고, 복식도 다시 척박한 환경과 유목 및 기마생활에 맞는 좁고 긴 포와 바지, 장화와 포피 차림으로 되돌아가는 양상을 보였다. 내몽골 지역의 몽골부족들은 1635년의 전투에서 만족을 지원하여 후금(淸)의 건국에 도움을 주었고, 일찌기 淸(1644~1911)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⁶⁾ 긴 항쟁 끝에 1691년 외몽골 할하 부의 영주들 역시, 청 황실의 봉록을 받고 조공을 납세하는 계약관계를 맺었다.⁷⁾ 청의 통치자들은 몽골 귀족여인과의 혼례 및 몽골 남자귀족에게 청의 작위

를 수여함으로써 몽골 흡수정책을 실시하였고, 대신 몽골의 강성한 군사력을 얻게 되었다.⁸⁾

이때 만족이 청을 건국하기 이전에 착용했던 복식 역시 세부는 달랐으나 길고 좁은 포, 승마를 위한 좁은 바지, 허리띠에 필수품을 매달아 휴대하는 등 몽골 고유의 유목풍 복식과 공통점을 가졌다. 이러한 형태는 청 제국기의 궁중 관복에 반영되어 화려한 재료와 함께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몽골족의 고유 복식과의 융합이 매우 쉬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두 민족 간의 공통점인 '유목민의 전통과 복식'은 청의 주요 통합수단으로 사용되었다.⁹⁾ 특히 청 왕조가 중국을 정복하는데 도움을 준 내몽골 차할(Chahar) 족의 복식에 만주복식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¹⁰⁾ 반면 외몽골 지역에서는 元 제국기 이전의 고유복식을 오래 유지한 것으로 보여진다.¹¹⁾ 현재 몽골 각 부족의 전통복식으로 알려진 스타일은 크게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여, 청 간섭기를 거쳐 20세기 초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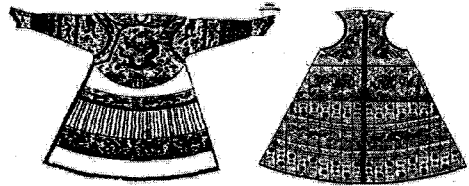
기에 와서는 쿠빌라이 한의 황후 차바이가 개발한 소매없는 승마용 외투 比甲(우우지(УУЖ))의 일종이 즐겨 입혀지게 되었다.¹⁴⁾



<그림 1> 12-13세기 남녀 동형의 몽골 델/ 황후용 델과 복타(原色·圖說(1982). 大世界史 2:아시아 國家의 展開. 서울: 太極出版社, p. 323 / 世界文化史(1970). 몽골帝國, 서울: 世界歷史シリーズ 第12卷, p. 28)

Ⅲ. 청 간섭기 몽골복식과 청 복식의 형태

12-13세기의 몽골 제국기에 착용된 몽골의 '유목풍 복식'은 척박하고 추운 유목환경 및 기마활동에서의 편리를 우선시한 것이었다. 자연히 남자와 미혼여성의 옷은 거의 유사한 형태¹²⁾였는데, 깊게 오른쪽으로 여머지는 직령(直領)이 달렸고 소매가 길고 좁으며, 허리에 대부분 주름이 있고, 허리띠에 소지품을 패용하며, 기마시에 바람을 막고 무릎을 가릴 수 있을 만큼 긴 델(дээл:Deel:長袍)을 착용했다. 그러나 결혼한 부인들은 허리띠가 없고 헐렁한 '에흐네르 델'(부인용 델)을 입거나 허리에 주름이 있는 헐렁한 포를 입었고, 높은 입식이 달린 복타(Б ОГТАГ:고고관)를 써야 했다.¹³⁾ 이것은 유목생활의 편리보다는 부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生命樹, 남성에 대한 복종, 전투력, 백년해로 등)를 포함하고 있었다.<그림 1> 이에 덧붙여, 원 제국



<그림 2> 청의 황태후용 조복과 조패. 원 제국기의 몽골 델릭 및 우우지의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中華書局影印. 清會典圖 五十九. 冠服 三, p. 617 / 中華書局影印. 清會典圖 五十八. 冠服 二, p. 612)

만족이 청을 건국하기 이전에 착용했던 복식 역시 이와 유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세부는 달랐으나 만족 역시 길고 좁으며 남녀의 것이 비슷한 모양인 기마용 포를 착용했었고, 승마에 편한 좁은 바지, 허리띠에 필수품을 매달아 휴대하는 기마 유목풍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현존하는 청과 몽골의 복식유물의 형태가 비슷하다는 점을 주목하더라도,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청 간섭기에는 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보인다. 작위 수여로 인한 청 궁중 관복의 착용, 청의 직물과 장신구의 몽골로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 몽골복식에서 청 복식의 영향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청 간섭기의 문헌 《만문노당》을 보면, 나라 안의 만주, 한인, 몽골인(蒙古人)의 旗를 다스리는 大臣 이하 代子, 十 Bayara, niru의 間散 부유한 자 등 이상은 마을의 거리로 나갈 때 朝衣(Ergume)을 입고....., 蒙古 諸王의 妻와 蒙古人의 婦女는 淸의 여자 관복인 捏摺女朝衣(Teleri:만주어 발음:황태후용 조복)와 捏摺女朝褂(Ojin:만주어 발음:황태후용 조괘)를 착용한다¹⁵⁾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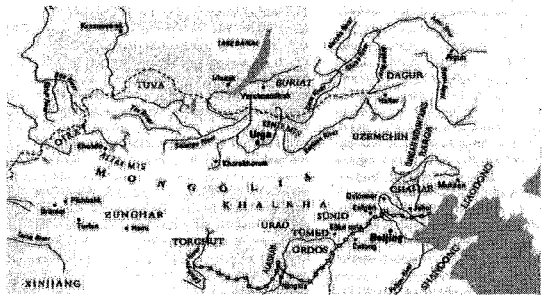
그러나 복식 자체의 형태와 문양을 보면, 조복(Teleri)와 Ojin은 각각 12세기 무렵에 이미 입혀졌던 몽골 고유의 텔릭(Telig:몽골어 발음:허리에 주름을 잡은 용포)¹⁶⁾과 우우지(Uudji:몽골어 발음:소매 없는 부인용 겹옷)에 해당하는 것으로, 몽골 고대 복식의 형태가 이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¹⁷⁾〈그림 2〉 또, 데 바이에르¹⁸⁾는 12~13세기경의 몽골석인상의 모자에 이미 청의 모자와 유사한 몽골 고유형이 나타났다고 한다.

현존하는 18~20세기의 몽골 관모류에도 청의 것과 다른 세부 장식이 더해지고, 몽골 특유의 상징이 부여되었다. 보편적으로 몽골의 남녀관모에 달린 붉은 술문치(紅纓)은 몽골의 토탐인 태양의 햇살로 해석되고 있다. 뾰족한 몸체에 누비진 누빔선은 몽골부족간의 연합을 상징한다. 몽골 관모의 위로 들린 검은 챙은 몽골을 둘러싼 '청의 침략자들'을 나타냈지만, 관모의 챙 일부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독립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했다고 한다.¹⁹⁾

그러므로 현존 몽골복식에서 뚜렷한 청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이전의 고유 몽골복식에서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한정된다. 대표적으로 사각형 여밈(大襟)과 높은 칼라(立領), 마제수(노드라카:馬蹄袖) 등의 디테일 및, 망단 및 용단 류의 비단과 청 스타일의 장신구가 몽골로 수입된 것, 청의 궁중 관복이 몽골 귀족에게 그대로 도입된 것 등을 청의 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IV. 淸 간섭기 몽골 복식의 지역간 특성

청 간섭기 이후의 몽골은 매우 많은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5~16세기 이후의 정치적인 관계 및 지리적인 위치 등을 고려한다면, 청 간섭기의 몽골은 크게 南시베리아(부리ят), 內몽골, 北몽골(할하), 西몽골의 복식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그림 3〉 청 간섭기 말의 몽골 지역 구분(Patricia Berger, Terese Tse Bartholomew (1995). *MONGOLIA--The legacy of Chinggis Khan*. London: Thames and Hudson, p. 11)

1) 南시베리아(부리ят:Buryat) 복식

(1) 몽골 유목풍

부리ят 족은 샤머니즘을 포함한 고대의 유목생활과 전통을 다량 보존하고 있었다. 특히 天藍色(하늘색)을 '핑케 텡게리(영원한 하늘)'의 상징으로 여겨 복식에 즐겨 사용하는 관습은 제국 형성 이전의 몽골 관습이자, 현존하는 부리ят 남녀복식의 특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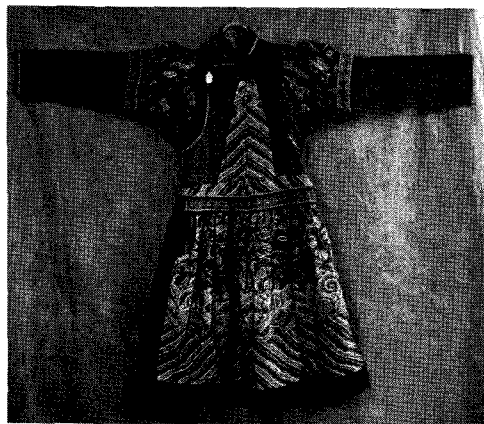
특히 위아래가 이어져 있고 허리에 주름을 잡은 테를릭(Terlig) 또는 델(Deel:Debel)은 고대의 몽골복식 형태를 계승한 것으로, 부리ят 족의 미혼여성과 부인 의복의 대표형이었다. 승마를 위한 형태이지만, G.캉톡호²⁰⁾에 의하면 '테를릭'은 주름의 유무에 상관없이 안감의 재료가 땀을 흡수하는지의 여부에 의한 명칭이었다.〈그림 4〉

또한 부리ят의 부인 델에는 선 장식(Buluubch)이 부착되었지만, 미혼여성 복식은 장식이 없고 남자복과 유사한 모양이었다. 이는 '남자와 미혼여성

의 복식이 유사하다'는 고대 몽골 유복복식의 특징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과의 관계로 인해 변형된 복식

부리얏 귀족 복식에는 청에서 수입된 용단(龍緞)이나 망단, 즉 龍을 미리 수놓은 비단이 즐겨 사용되었다. 청 간섭기에 몽골 자체에서 생산되는 재료가 부족했던 때문으로 보이지만, 용은 몽골 제국기에도 신성한 상징이었고, Lama 및 중국 불교도들에게 있어 힌두이즘의 'nagas'와 동일시된 존재로 인식되어 널리 사용되었던 문양이었다.²¹⁾



<그림 4> 19세기경 부리얏 귀부인 테를릭
(몽골국립역사박물관 소장, 본인 촬영)

2) 내몽골 복식(현 내몽골 자치구)

내몽골 지방의 남녀복식도 몽골 유목풍의 고유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청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의복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몽골 유목풍

마제수(馬蹄袖)와 네모 여밈(大襟)이 달린 긴 포는 청 복식의 세부요소를 지녔으나, 고대의 '男女同形의 긴 텔'이란 형식과 같아 몽골에 쉽게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의 기본복식 형태에 재료나 선 장식 등의 변형이 가해졌으며, 20세기 초까지 유목생활을 행하던 몽골부 전역에서 널리 착용되었다.

<그림 5> 또한 부인들의 의복은 몽골 특유의 형태(머리둘레에 딱 맞고 늘임장식이 달린 머리장식, 장식판이 달린 우우지)에 청의 재료가 섞인 것도 많았다.

(2) 청과의 관계로 인해 변형된 복식

내몽골 지역에는 만족의 기본복식인 '旗袍'(치파오) 형태가 다량으로 남아있다. 이는 몽골의 Khorchin, Tumet, Daghur 여자들이 17세기 이후 청 간섭기를 거치면서 청의 여자복식을 거의 그대로 착용했던 경우로 볼 수 있다.<그림 6>

몽골식 깃 없는 우우지(Uudji:소매없는 겹옷)와는 달리 청 스타일의 차이니즈 칼라(立領)를 부착하는 등, 청 스타일과 혼합된 우우지²²⁾은 주로 Ordos, Daghur, Chahar, Sunit 등의 내몽골에서 사용되었다. 소매없는 우우지는 몽골 원 제국기에도 입혀진 것이었는데, 이후 대표적인 부인 예복으로 발전했다.



<그림 5> 19-20세기 초, Sunit 남성용 델(상)과 Abaga 여성용 델(하) (Henny Harald Hansen (1993). MONGOL COSTUMES. London: Thames and Hudson, p. 41, p. 45)

<그림 6> 19-20세기 초, 지갑투를 착용한 다구르 solonchi 부인:만족 부인복 (Henny Harald Hansen (1993). MONGOL COSTUMES, p. 60)

청의 길고 뾰족한 손톱 장식물인 '指甲套'(護指)는 20세기 초의 몽골 다구르에서도 발견되었다.²³⁾

착용자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고귀한 신분임을 나타내며 봉건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복식으로 서, 清末까지 내몽골 부녀들이 청 궁중복식 및 생활을 공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림 6>



<그림 7> 19~20세기 초, 내몽골 튜멧 지역의 鈿子 (Martha Boyer (1995), *MONGOL JEWELRY*, Copenhagen: Rhodos International Science and Art Publishers A/S, p. 94)

19~20세기 초의 것으로서 만족 궁중여인의 간편한 예모이자 혼례용 모자였던 '鈿子'가 내몽골의 튜멧 지역으로 그대로 도입된 예도 볼 수 있다.<그림 7>

청조의 복식을 통한 통합정책은 생활터전을 같이 하던 내몽골 및 그 인접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北몽골(할하:Khalkha) 복식(현 몽골리아 공화국)

몽골 전체 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할하(Khalkha)족의 복식은, 청 복식의 세부요소(立領, 노드라카, 大襟) 외에 상징적인 유목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장대하고 인상적인 형태를 하고 있었다.

(1) 몽골 유목풍

청 간섭기의 Khalkha 몽골인들은 궁지와 자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위로 접혀올라간 모자의 차양, 소매 끝에 달린 두 개의 마제수, 위로 들린 장화의 앞코 부분 두개 등 유목복식의 특징을 가진 '위로 들린' 부분을 '5가지의 자금심'으로 여겼다.²⁴⁾

소매가 없는 몽골여자의 정장으로서 델 위에 입

는 것이 '우우지'이다. 청 스타일과 달리 따사니 고얼르(Ташаани голл:長方形 장식판)과 허리주름을 넣은 것이 19세기 말까지 입혀진 할하 우우지의 특징이었다. 이것은 이미 元代에 제정된 比甲의 형식(맞닿는 곳에 소매가 없고 주름이 있는 승마용 외투)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므로, 고유의 유목풍 복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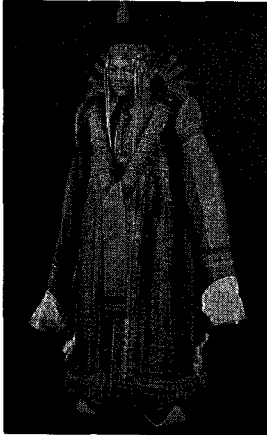
Martha Boyer²⁵⁾는 Yakut 샤만 허리띠 문양과 할하의 '우갈잔 키(ugalzan khee: угалзан хээ:산양 뿔 무늬)'와의 연관성을 제시하며, 특히 이는 할하 몽골의 특징임을 언급했다. 이때의 우갈잔 키는 고대 유목적 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9>

19세기 말까지의 할하 및 밍갓 족의 대표적인 부인 머리형은 테레구르 우스(Teregur ushi:둥근 머리)였다. 양쪽으로 넓게 퍼진 모양이지만 청 여자의 양과두와는 다르며, 모발을 양쪽으로 갈라서 쇠뿔형의 두식 골격에 빚어붙인 후 편을 방사형으로 꽂아 고정시켰다. 머리카락의 나머지는 양쪽으로 길게 땅아내리고, 양옆에 덮개가 달린 둥근 금속제 관모 '톨르고인 볼뜨'(толгойн боолт)²⁶⁾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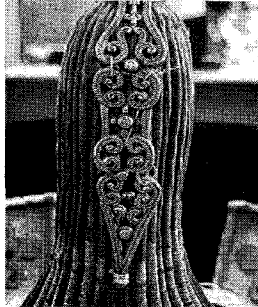
이 두발형태는 특히 '牛角 형태'라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몽골 전설에 의하면 할하 몽골인은 그들의 기원을 황소와 자연의 교감에서 찾았고, 유목민의 기원을 잊지 않기 위해 할하 여자들은 황소의 뿔을 나타내는 머리 장식을 착용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²⁷⁾ Larson과 Bergmann는 밀으로 말려진 야생 산양 뿔(우갈잔 키)과 이 머리형의 형태가 비슷하며, 야생 산양이 몽골의 유목생활에서 음식, 의복, 천막(Ger)을 짓는 재료를 제공한다²⁸⁾라는 점을 들어, 비슷한 관점의 설을 제시하였다.

할하 및 밍갓 족 부인용 델의 특이한 어깨버팀대 '툰투그르 무르테(Tuntger mörtei: 높은 어깨)' 역시 황소의 모습을 모방하여 몽골 유목민의 정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부인의 복식에 이것이 적용되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그림 8 참조>



〈그림 8〉 18-20세기 초 할하 귀부인의 정장차림 (Henny Harald Hansen, (1993), *MONGOL COSTUMES*, p. 85)



〈그림 9〉 19-20세기 할하 관모의 우갈잔 키 문양 (몽골 국립역사박물관 소장, 본인 촬영)

(2) 청과의 관계로 인해 변형된 복식

청 왕조의 복식을 고유복식과 혼합하여 응용한 할하 몽골에서는, 청에서 들어온 주름 없는 우우지도 사용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할하 복식의 '5가지의 자긍심'을 보면, 청 朝服의 주요 특징인 마제수가 할하 몽골의 자유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청 복식을 본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제수의 본래 쓰임이 추위를 막고 펴고 접으며 유복생활에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항감 없이 몽골복식에 널리 수용된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8 참조〉

테르구르 우스(Teregur ushi)의 기원을 '독수리의 날개형'으로 보는 설도 유력한데, 이것은 17세기 경의 청의 억압과 관련된 것이다.

17세기 무렵 할하를 비롯한 몽골부가 청의 간섭 체제로 들어간 뒤, 청 왕조에서 보내온 난로에는 까마귀의 형상이 올려져 있었다. 이는 청 왕조의 까마귀가 몽골을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는 뜻을 유포한 것이라 한다. 이에 몽골인들은 반발심을 가졌고, 까마귀를 압도하는 신화 속의 '鳥王(항가르데)'의 날개형으로 부인 두발을 만들어 착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⁹⁾ 이는 앞서의 우각형 두식 설에 비하여 정

치 외교적인 관계로 인한 특성이 강한 것이다.

또한 독수리 날개는 사면의 고깔모자에 부착되는 독수리깃과 마찬가지로 고대 토템신앙의 잔재라고도 한다.³⁰⁾ 이를 참조한다면, 테르구르 우스의 형태를 설명하는 '鳥王 신앙'은 고대의 토템신앙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불편하고 장대한 머리형으로 할하 부인들은 그대로 기마와 유목생활을 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고대 유목 몽골의 상징이기도 했다. 할하 족 복식에서도 청조의 직물 및 복식의 세부 요소를 응용해서 사용했으나, 할하 족의 부인복식에서는 저항 의식과 유목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西몽골 복식

서몽골 지역은 元朝와의 혼인 혈족에 해당되는 오이랏(Oirat)연합 중에서 준가르(Jun Ghar)부족 중심의 유목제국으로 대표된다. 서몽골 지역은 清朝에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서몽골 지역의 복식은 '유목 복식'의 특징과 함께 상대적으로 흰색 초커(넓고 둥근 플랫폼 칼라) 등의 러시아 의복 디테일도 다수 도입되었다.

(1) 몽골 유목풍

14세기말 잦은 내부투쟁을 겪었던 서몽골인들은 정치군사동맹(Oirat)을 형성했고, 1640년에는 몽골·오이랏 법전이 만들어졌다.³¹⁾ 이 법전의 제 11 조는, '전투에서 도망친 비겁자는 여자용의 소매없는 짧은 옷(체다크:цэгдэг:우우지(УУЖ)의 일종)을 입어야 한다.'³²⁾라고 말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시 전투가 잦았던 서몽골의 상황과 함께 남녀의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있었음을 의복을 통해 나타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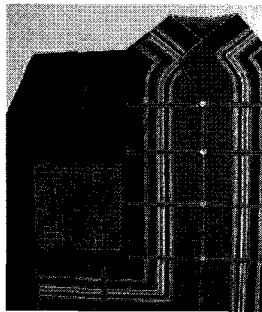
19~20세기 초 Uuld 족의 검은 체다크(цэгдэг)는 '짧은 체다크'로 불리웠는데,³³⁾ 앞부분의 깃의 길이가 짧고 뒷부분은 길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맞닿은 여밈이고 허리에 주름이 있어, 이와 유사한 모양이고 기마에 편해 많이 입혀졌던 元의 '比甲' 혹은 고려의 '뚝지털릭'³⁴⁾ 형식을 보존한 옷으로 볼 수 있

다.<그림 10>

청 간섭기 무렵의 일반적인 西몽골 테를릭 허리에 다른 지역의 것처럼 기마를 위한 플리츠 주름을 잡았다. 자흐친 부인용 책다크(цэгдэг)에는 허리에서 밑단까지 트임이 있어 기마에 편했으며, 두께가 3~4mm에 달해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전투가 잦았던 서몽골의 상황을 말해주는 복식이기도 하다.



<그림 10> 19-20세기 초, 울드 족의 부인 책데크 (Mishigdorjyn Amgalan (2000). *The cultural monuments of Western Mongolia*. MONSUDAR, p. 63)



<그림 11> 19세기 말-20세기 초, 코벽 족의 테를릭과 단추고리 (Mishigdorjyn Amgalan (2000). *The cultural monuments of Western Mongolia*, p. 42)

19~20세기 초 Khovog족 부인의 갈색 비쉬무트(бишмүт:bishmut:테를릭의 다른 이름)의 오른쪽 가슴에 달려있는 단추고리는 일상용품과 여행용 주머니 등을 걸어서 늘어뜨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역시 활동의 편리를 고려한 것이었는데³⁵⁾, 단추고리와 어우러진 포켓 자체의 형태는 서양식을 따른 것이었다.<그림 11>

몽골 부인의 의복은 정장일지라도 몽골 여인 생활의 기본인 '유목'과 '전투'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서몽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인복에 옷단을 대고 테두리선을 두르는

것은 몽골인에게는 여자의 정조와 정신을 지킨다는 상징이었다.

Oirad족의 세브겔(сэвгэл:소녀용 테를릭)은 노드라카(마제수)가 없고 부인복보다 매우 단순한 형태이며 남자처럼 좁은 부스(허리띠)를 허리에 뻗지만, 몽골 전통에 따라 기혼녀가 되면 부스는 쓰지 않았다고 한다.³⁶⁾ 이것은 12~13세기경의 몽골 유목형 복식에서 이미 관찰된 현상으로, 유목생활에 편하도록 남녀 구별없이 발달된 의복이 이후로도 몽골의 전통으로 유지된 것이다.

(2) 청과의 관계로 인해 변형된 복식

1439년경에 오이랏(Oirad) 몽골의 토곤 타이지는 몽골족과 기타 민족을 구별하는 상징으로서 '붉은 잘라(залаа: 술장식)를 착용할 것'을 포고했다.³⁷⁾ 이는 淸과의 투쟁을 위한 몽골족의 결합 정책 및 복식을 통한 결집력 강화를 의도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림 12> 19-20세기 초, 자흐친 여성 양가죽 델과 '올바른 여밈' (Mishigdorjyn Amgalan (2000). *The cultural monuments of Western Mongolia*, p. 26)

마제수와 흰 초커가 달린 자흐친 여자용 양가죽 델(Нэхий дээл), 우량하이 족과 Torguud 족 부인용

테를릭에는 옆으로 붙씩 나온 네모난 여밈 부분이 있는데, '올바른 여밈(зөв энгэр:correct bosom)'이란 이름으로 불리웠다.<그림 12>

몽골 독립 이전의 전쟁에서 청의 병사들이 몽골인 말살을 목적으로 몽골 입산부의 오른쪽 배를 쏘아 태아를 살해했다. 당시의 몽골인들이 이를 막기 위해, 철판이나 버드나무 돛자리를 델의 안쪽에 넣으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형식의 여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³⁸⁾ 이 형태는 내몽골 복식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이는 형태상 청 복식의 여밈 중 '비파금(琵琶襟)'과 유사하지만, 반대로 청의 말살정책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저항과 거부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서몽골 지역의 복식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렇듯 각 지역별 몽골 복식의 특성 및 청 복식의 수용 방식은 각각 달랐으며,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V. 결론

몽골과 만족의 유복 복식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크게 추위 방지와 민첩한 기마 및 전투의 편의를 위해 좁고 긴 델을 입었고, 일상 필수품의 패용, 남자와 미혼여성이 같은 모양의 의복을 선호했던 점이였다.

청 간섭기의 몽골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허리주름을 잡은 좁고 긴 직령 델'이었던 독특한 고유 유복패 위에 당시의 청 복식의 디테일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고유의 복식형태 위에 청 복식 중 유복에 편리한 요소를 적극 받아들인 것으로, 기후변화에 알맞게 적응하는 노드라카(마제수), 깊게 여며지는 大襟 형식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청 관복 및 일상복(치파오 및 머리장식 류) 등을 수용한 것이다. 내몽골지

<표 1> 청 간섭기의 지역별 몽골복식의 특성 및 청 복식의 수용 방식

| 구분 | 부리ят | 내몽골 | 할호 | 서몽골 |
|----------------|---|---|---|--|
| 몽골 유복패 복식 | 미혼여성과 남성 복식은 유사(유복형 델), 여성복의 주름띠(татах), 푸른 服色과 龍紋, 허리주름 델(기마를 고려한 형태) | 미혼여성과 남성복식은 유사(유복형 델), 여성용 늘임머리장식, 허리주름 우우지(ууж)(기마를 고려한 형태) | 미혼여성과 남성 복식은 유사(유복형 델), 툰드구르 무르테(婦人용 높은 어깨), 페르구르 우스(우각형 해석), '우갈잔 키' 문양, 허리주름 우우지와 델(기마를 고려한 형태) | 미혼여성과 남성 복식은 유사(유복형 델), 코빅 bishmut의 휴대용 단추고리, 자흐친 책테크(화살막이), 허리주름 책테크와 델(기마를 고려한 형태) |
| 청과의 관계로 변형된 복식 | 清 복식 수용 | 捏摺女朝褂(ojin), 捏摺女朝衣(teleri) 등의 朝服류, 龍緞, 蟒緞, 비단류, 冠帽류, 노드라카, 大襟, 立領 | 龍緞, 蟒緞, 비단류, 冠帽류, 노드라카, 大襟, 立領 | 비단류, 冠帽류, 노드라카, 大襟, 立領 |
| | 淸에 대한 저항 | 冠帽에 대한 해석 | 冠帽에 대한 해석, '올바른 여밈' | 冠帽에 대한 해석, '5가지 자궁심', 페르구르 우스(독수리 날개형 해석) |
| 기타 | 19세기 말~20세기 초 러시아 인접지역의 몽골 델에 포켓 및 컨버터를 칼라, 백색 초커형 칼라 도입. 러시아 및 서양 비단 다량 수입 | | | |

방에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이었는데, 청과 내몽골이 생활 터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더욱 수월하게 수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는 할하의 '페르구르 우스'나 서몽골 인근지역의 '올바른 여밈', 혹은 몽골 관모의 생김새를 태양 토템과 독립심의 상징으로 보는 해석처럼, 항쟁 과정에서 청의 간섭과 억압에 대한 저항감과 자의의지가 복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몽골 각 부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복식 수용양상은 다소 다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남시베리아의 부리얏 지역은 영원한 하늘(핑케 텡게리)사상을 비롯한 12세기 이전의 고유 샤머니즘과 고대 기마민족의 전통을 보존해 내려온 경향이 강했고, 푸른 服色과 허리주름이 들어간 남녀용델, 용 문양의 선호 등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몽골 중 비교적 일찍 청과 융합이 이루어졌던 부족의 복식은 청의 영향이 가장 뚜렷한 편이었다. 특히 청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청의 일반복식(치파오 류)와 장신구 류가 큰 변형 없이 다량으로 도입되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청과 가장 유사한 복식을 착용했던 곳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오랜 항쟁을 거친 서몽골 및 할하 지역에서는 청에서 들어온 朝服 류나 비단류, 청 복식의 디테일도 수용되었다. 그러나 페르구스 우스, 툰드구르 무르테, '올바른 여밈' 등을 통해 정치적인 저항 의식과 몽골 유목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표현된 복식들이 다수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몽골의 부인 복식을 보면, 기마 및 활동의 편리함 외에 유목 상징이 뚜렷이 표현되었다. 몽골 부인이 가사를 돌봄과 동시에 고대로부터 남편을 대신해 전투와 기마활동을 행할 만큼 몽골 유목생활에서 중요한 존재였던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유사한 청 간섭기의 몽골복식과 청 복식의 차이와 의미를 고찰해 보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한국 복식과 관련짓는 연구가 추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몽골과 청이 17세기 전후로 맺어온 관계는 '계약'에 의한 군신 관계라는 의미가 짙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청 지배기'라는 용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몽골의 역사학계에서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인터뷰에 응한 몽골 학자들 및 국내의 몽골관계 역사학자들과의 상의 하에 '청 간섭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2) 시행 일자: 2000년 11월 2일~2000년 11월 7일로, 몽골 울란바트르 국립역사박물관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국립역사박물관에 소장된 19~20세기 초반의 복식 유물 조사도 함께 병행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몽골 학자는 몽골 국립역사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Mongolian History)의 Director인 Idshinnorov Sanduin 박사, Vice Director인 Dugar Nansalmaa 박사, 울란바타르의 몽골국립대학 몽골학대학 民俗言語학과 G. Gantogtokh 교수이다.
- 3) С.Бадамхатан 外 (1987). *БНМАУ-ЫН УГСААТНЫ ЗҮЙ I-ХА ЛХЫН УГСААТНЫ ЗҮЙ*, Улаанбаатар: Улаан-баатар, p. 151.
- 4) 이를 참조해 본문에서는 추운 환경 적응과 민첩한 활동, 기마생활 등 유목생활에 적합하거나 유목 상징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복식 스타일을 이후 '유목풍 복식'으로 칭하고자 한다.
- 5) 최해울, 남윤자, 조우현 (2002). 몽골여자복식의 변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 52(4), pp. 116-118.
- 6) René Grousset,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역 (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서울: 사계절출판사, p. 720참조.
- 7) René Grousset (1998). 위의 책, p. 732.
- 8) 尹英均 (1997). 喇嘛教 政策을 통한 清朝의 몽골 統治- 理藩院의 喇嘛事例를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p. 1.
- 9) 明과 朝鮮은 언어가 다르지만 衣服과 생활이 한 가지이고, 몽골과 女眞(滿洲) 우리 兩國는 언어가 다르지만 衣服과 생활이 같은 모양이다. 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昭和 30년). 日譯 滿文老檔 I. 東京: 東洋文庫, p. 160.
- 10) Henny Harald Hansen (1993). *Mongol costumes*. London: Thames and Hudson, p. 20.
- 11) 王伯敏 主編 (1995). *中國少數民族美術史* 1편. 福建美術出版社, p. 200 참조.
- 12) Christopher Dawson (1980). *Mission to asi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 7.
- 13) Christopher Dawson (1980). *op. cit.*, p. 102.
- 14) 蒙兀兒史記 卷 第19, 蒙史 十九, 后妃列傳 第一.
- 15) 滿文老檔研究會譯註 (昭和 36년). 日譯 滿文老檔 V 太宗 2. 東京: 東洋文庫, pp. 870-872.
- 16) 朴聖實 (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壬辰倭亂 以前時期를 中心으로-. 世宗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博士논문, p. 115 참조.
- 17) 최해울 (2001). 몽골 여자복식의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pp. 141-143.
- 18) 데 바이에르, 박원길 옮김 (1994). *몽골서민상의 연구*.

- 서울: 도서출판 혜안, p. 70 참조.
- 19) M. Altantsetseg, & S. Baasanbayar (1997). *Life on the saddle*. Ulaanbaatar: Ulaanbaatar, p. 15, p. 16.
- 20) 몽골 국립대학교 민속학과 G. 강특호 교수(2000)는, 테를릭의 기원은 투르크어 '텔-다크', 즉 '땀을 흡수하는 것', 더 나아가 '땀받이용 안감을 댄 것'이란 의미이며 주름과는 관계가 없음을 역설했다. 실제로 수집가 H.H.Hansen이 20세기 초에 수집한 청 간섭기의 몽골 복식유물들을 보면, 주름이 있는 옷이어도 '텔'(Deel: 袍), 혹은 사투리로 '데벨(Debel)'이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많다. 본문에서 앞서 인용한 박성실(1992)의 논문 중의 수미야 바타르 교수(1992)의 의견 및 최해울과 G.강특호 교수(2000)의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테리릭(Telig)'은 허리에 주름이 잡힌 포, '테를릭(Terlig)'은 안감이 땀을 흡수하는 포로 구분하도록 한다. 최해울 (2001). *몽골 여자복식의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pp. 63-66, pp. 157-158 참조.
- 21) Martha Boyer (1995). *Mongol jewelry*. Copenhagen: Rhodos International Science and Art Publishers A/S, p. 229.
- 22) 서몽골의 울드, 토르곳, 우량하이, 두르벳, 바야드 족에서는 소매없는 부인용 겹옷인 '우지'의 일종이라는 의미로 '체테크'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할하 족에서는 '텔 안에 입는, 솜을 누빈 짧은 옷'을 체테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Л.СОНОМЦЭРЭН (1989). *МОНГОЛ АРДЫН УЛАМЖЛАЛТ УРЛАГИЙН ДУРС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ЫН ХЭ ВЛЭЛИЙН ГАЗАР, pp. 124-125.
- 23) Martha Boyer (1995). *op. cit.*, p. 184.
- 24) Martha Boyer (1995). *ibid.*, p. 33.
- 25) Martha Boyer (1995). *ibid.*, p. 239.
- 26) M. Amgalan은 이를 고대 몽골부인의 복타(Bogtogo)에서 파생된 것이며, 높은 입식이 사라진 후의 형태로 보고 있다. Mishigdorjyn Amgalan. N. Dorjotov 역 (2000). *The cultural monuments of Western Mongolia*. Monsudar, p. 19 참조.
- 27) Patricia Berger, Terese Tse Bartholomew (1995). *Mongolia: The legacy of Chinggis Khan*. London: Thames and Hudson, p. 110.
- 28) Martha Boyer (1995). *op. cit.*, p. 127.
- 29) 몽골역사박물관 난슬마 부관장(2000)의 설명.
- 30) Д.Д.ВИКТОРОВА (1980). *МОНГОЛЫ*.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МОСКВА, p. 45.
- 31) V.A. 라자노프스키, 서병국 역 (1996). *몽골의 관습과 법*. 서울: 도서출판 혜안, p. 23, p. 68 참조.
- 32) V.A. 라자노프스키, 서병국 역 (1996). 위의 책, p. 139. 또한 인터뷰 결과로서 강특호(2000)는 이 여성용의 짧은 옷을 '체다크'로 설명했다. 이는 체다크류 중에서도 비교적 짧은 체다크로 분류할 수 있다.
- 33) Mishigdorjyn Amgalan (2000). *op. cit.*, p. 63
- 34) ...無袖對襟爲襖積者曰比甲 卽本國晉지털릭 婦女亦依此制 爲短換着之亦曰比甲通稱搭護(후략): 朴通事諺解上, 奎章閣叢書 第八, 明線抹絨胸背的比甲註
- 35) Mishigdorjyn Amgalan (2000). *op. cit.*, p. 44 참조.
- 36) Mishigdorjyn Amgalan (2000). *ibid.*, p. 32.
- 37) 楊海英 (1999). 기마 유목민의 의복: 이평래, 朝倉敏夫 역 (1999). *초원의 대서사시-몽골 유목문화 대전*. 서울: 경기도박물관, p. 58.
- 38) Mishigdorjyn Amgalan (2000). *op. cit.*, p. 27 참조.